

글로벌 방산수출 Big 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요약

우리나라방산수출은 최근 5년(2017~2021)간 177%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며 세계 8위 방산수출 국가로 도약하였다. 특히 2021년 하반기부터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폴란드에 이르는 역대급 방산수출 계약에 성공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수출 계약에 성공할 경우, 올해 방산수출은 정부가 목표한 150억 달러를 넘어 200억 달러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다.

새 정부가 요구하는 방위산업의 미래먹거리 신산업을 넘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등 국가 주력산업의 하나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방산수출 혁신이 요구된다. 본고에서 K-방산 수출지원제도를 분석한 결과, 컨트롤 타워 구축 등 총 13개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 근접 5개, 다소 미흡 6개, 매우 미흡 2개로 평가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 방산수출지원제도는 지난 10여년간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우리나라 방산수출이 '글로벌 Big 4'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3 세대 방산수출 전략 마련, 컨트롤 타워 강화, 구매국 맞춤형 방산수출 확대와 함께 철중교역 고도화,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그리고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duction-MOU) 체결을 통한 세계 최대 방산시장 진입 확대 등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서론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최근 5년(2017~2021)간 177%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며 세계 8위 방산수출 국가로 도약하였다. 아울러 2021년 하반기부터 호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폴란드에 이르는 역대급 방산수출 계약에 성공하면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영국, 이탈리아, 중국, 독일 등을 제치고 글로벌 방산수출 세계 4위권까지의 진입도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에 힘입어 새 정부는 지난 5월 110대 국정과제에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포함하여 적극적

인 수출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향후 국내 방위산업이 미래먹거리 신산업을 넘어 국가주력산업의 하나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장치산업적 특성과 규모의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 등을 고려한 지속적인 방산수출 혁신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외 방산시장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주요국과의 방산수출지원 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글로벌 방산수출 Big 4 진입’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글로벌 방산시장 동향과 전망

(1) 글로벌 국방예산 동향과 전망

글로벌 국방예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7년 연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2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는 전 세계 GDP의 2.2%, 총 정부 예산의 6.0%, 1인당 268달러에 달하는 수준으로 최근 수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국지적 분쟁 지속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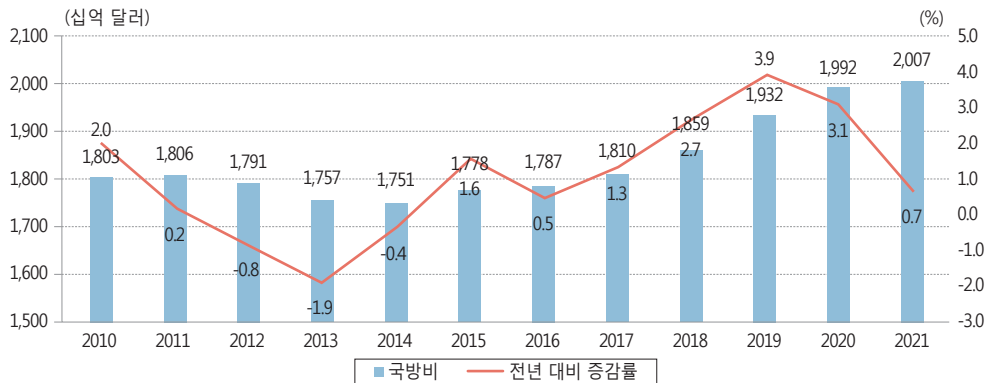
특히,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NATO, 인도·태평양, 중동 등 전 세계적인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하원 본회의에서 총 8,390억 달러

에 이르는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도 내년도에 1,000억 유로의 특별방위기금을 신설하고 일본도 향후 5년 내 GDP의 2% 수준으로 국방예산 증액을 추진하는 등 당분간 전 세계적인 군비 확장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글로벌 방위산업 동향과 전망

최근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국방예산 증가 추세에 따라 방위산업 생산액 또한 꾸준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준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생산액은 2015년 대비 17% 성장한 5,3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향후 글로벌 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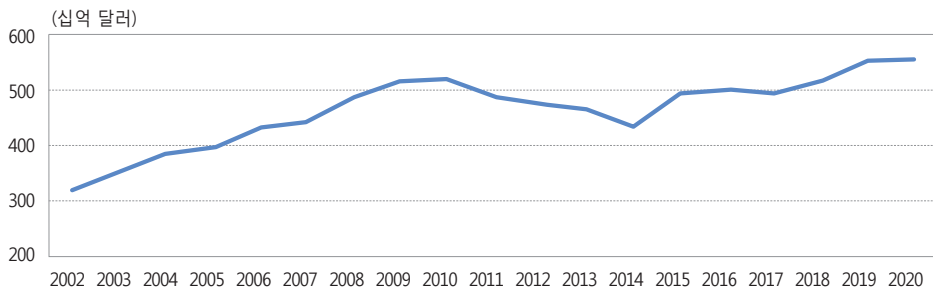
〈그림 1〉 글로벌 국방예산 추이(2010~2021년)



자료: SIPRI(2022),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를 기초로 산업연구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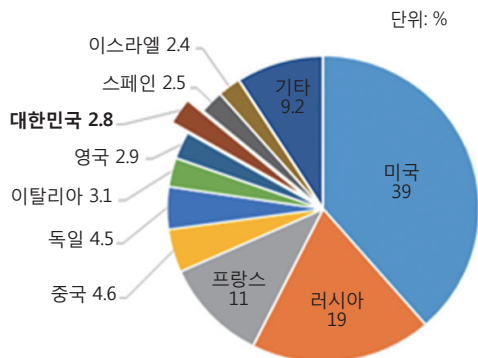
주: 경상가 기준.

〈그림 2〉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생산액 추이(2002~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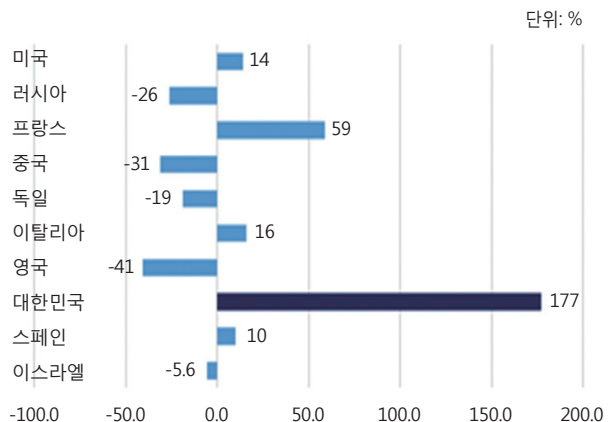
자료: SIPRI(2022), Sipri Arms Industry Database를 기초로 산업연구원 작성.

〈그림 3〉 10대 방산수출 국가 현황 (2017~2021년)



자료: SIPRI(2021, 2021), "TOP100 Arms Producing and Military Services Companies".

〈그림 4〉 주요국 방산수출 증가율 추이 (최근 5년 vs 과거 5년)



자료: SIPRI(2022),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경쟁 가속화에 비례하여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방산수출 시장 규모는 과거 5년(2012~2016) 대비 최근 5년(2017~2021)간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방산수출이 과거와 같이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현지 생산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절대규모가 다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 보면 여전히 방산수출 5대 강국인 미·러·프·중·독이 전체의 78.1%를 차지하며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전체 시장의 2.8%를 차지하며 세계 8위로 도약하였다.

3. 국내 방산수출 최근 동향

(1) 국내 방산수출 수주 현황

국내 방산수출(수주 기준)은 2008년 10억 달러를 넘어선 이래 최근 10년(2011~2020)간 연간 20~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하다가 2021년 수출 호조로 7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과거 아시아, 북미 중심에서 최근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

프리카까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과거 탄약, 함정 중심에서 최근에는 기동, 화력, 항공, 함정, 유도무기까지 다양화·첨단화되고 있다.

(2) 국내 방산수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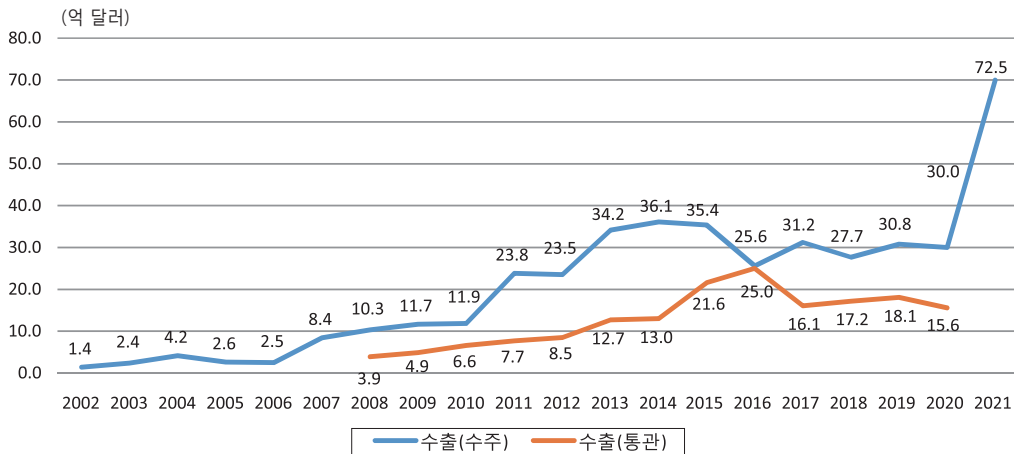
정부는 금년 2월 이집트(K-9 자주포, 2조 원)에

〈표 1〉 무기체계별 방산수출 현황(2010~2022. 9)

	주요 수출 품목	주요 수출국가
화력	K-9 자주포, 권총탄, 탄약류 등	미국, 핀란드,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
항공	KT-1 기본훈련기, KA-1,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등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태국, 이라크, 세네갈, 필리핀, 폴란드 등
함정	1,400톤급 잠수함, 전투함, 호위함, 군수지원함, 해안경비정, 함정전투체계 등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태국, 영국,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 등
유도	천궁-Ⅱ, 현궁, 해성, 천무 등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동	장갑차, K-2 전차, 군용차, 파워팩 등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필리핀, 폴란드 등
부품/기타	전원공급기, F-15 전투기 창정비, F-15 전방시현장비, 브래킷, 함포 부품, 현수장치, 케이블, 광학 부품 등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그림 5〉 우리나라 방산수출 추이(2002~2021년)



자료: 방위사업청, 방진회, KIET, 각 년호 종합.

이어 7월 폴란드(K-2 전차, 장갑차, FA-50 경공격기, 10조 원 이상) 등의 수출 계약에 성공하며 연초 목표했던 방산수출 150억 달러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금년 연말까지 호주 레드백 장갑차(50억~75억 달러)와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7억 달러), 노르웨이 K-2 전차(17억 달러), 이집트 K-2 전차, FA-50 경공격기(40억~55억 달러), 콜롬비아 FA-50(1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천궁-II, 호위함, 비호복합(60억 달러 이상) 등의 수출 계약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주요 방산수출사업 계약들이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목표치인 150억 달러를 넘어 200억 달러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향후 방산수출 유망 품목 현황(2022년 9월~)

품목	대상 국가	규모(예상)	비고
레드백 장갑차	호주	50억~75억 달러	9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예정)
FA-50 경공격기	이집트	30억~35억 달러	
	말레이시아	7억 달러	
	콜롬비아	10억 달러	
K2 전차	노르웨이	17억 달러	10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예정)
	이집트	10억~20억 달러	
천궁-Ⅱ	사우디아라비아	20억 달러	
호위함		20억 달러	
비호복합		20억 달러	
합계		184억~224억 달러 이상	

자료: 기업 인터뷰, 보도기사를 종합하여 산업연구원 작성.

4. K-방산 수출지원제도 현황과 주요국 비교

(1) K-방산 수출지원제도 현황

최근의 방산수출 성과는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수출 지원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정부는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오고 있다. 먼저 방산수출 인프라 측면에서는 2009년 방산물자 수출 전담기관인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2020년에는 방산수출 컨트롤 타워 강화 차원에서 BH 방산담당관을 신설하였다. 또한 새 정부는 기존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안보실 주관의 ‘범정부 방위산업발전협의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품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2013년부터 수출용 개조개발 R&D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2020년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영 제도 도입 등을 비롯해 수출 시 기술료를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등의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이차보전 및 연불 금융 지원 확대, 방산수출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참여 및 홍보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타 정부 간 거래(G to G) 개선, 패키지 딜 제공, 수출유망국가들과의 방산협력 MOU 체결 확대 등 다방면에서 방산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2) 주요국 방산 수출지원제도와의 비교분석

이와 같은 정부의 방산수출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선진국 지원제도를 참고하여 지속적인 보완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을 비롯한 방산수출 선진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강력한 방산수출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 간 거래(G to G) 제도를 비롯해 수입 및 수출 절충교역, 현지 정보 획득 및

〈표 3〉 K-방산 수출지원제도 주요 현황(2009~2022년)

	주요 내용
① 수출 인프라	· 방산수출 컨트롤 타워 강화(국방산업발전협의회 신설(2011~), BH 방산담당관 신설(2020~), 안보실 주관 범정부 방위산업발전협의회(2022~) 신설 등) ·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설립(2009~) 등
② 제품 경쟁력 강화	· 수출용 개조개발 R&D 지원사업 신설(2013~, 연 400여억 원), 수출 시 기술료 한시적 감면(~2022.12) ·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영제도 신설(2020~) 등
③ 기업 경쟁력 강화	· 이차보전 및 연불 금융 지원 확대, 방산수출 마케팅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여 확대, 홍보 지원 강화 등
④ 정부 수출 지원 확대	· G to G 개선, 패키지 딜 제공, 방산 협력 MOU 체결 확대 등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표 4〉 주요국 방산 수출지원제도 현황

	선진국 경쟁력	한국 경쟁력		주요 내용
		2012	2022	
컨트롤 타워 구축	◎	△	○	· 미국은 국제안보담당 차관실, 이스라엘은 국방부에서 담당, 프랑스는 국가계약 지원위원회(CIACI) 운영, 러시아는 대통령 주관 방위산업위원회 분기별 운영 · 한국은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신설(2011~), BH 방위산업담당관 신설(2019~2022), 안보실 주관 '법정부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신설(2022~)
방산협력 네트워크 강화	◎	△	○	· 미국은 FMS를 통해 전 세계 우방국에게 무기 지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도 Hub & Spoke 전략으로 권역별 방산수출 중점국가 운영 · 한국은 최근 방산협력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으로 한·미 RDP-MOU 체결과 함께 권역별 Hub & Spoke 전략 강화 필요
수출 시 기술료 면제	◎	△	○	· 미국은 해외업체에게 회수불능비용(NRC)을 부과하고, 자국업체 수출 시 기술료 공제(일종의 면제), 영국은 최초부터 수출을 목표로 개발 시 면제, 이스라엘은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 시 기술료 면제, 프랑스는 연구개발에 대한 무이자 대출(ANVAR) · 한국은 2022년 말까지 한시적 면제, 선진국 수준으로 영구 면제 필요
방산 수출금융 지원	◎	×	△	· 대부분의 방산 선진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수출신용보증 이용, 미국은 수출신용보증 이외에 대외 군사재정 프로그램(FMFP)을 추가적으로 이용 · 한국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저리, 장기의 방산수출금융 지원
방산마케팅 지원	◎	△	○	· 미국은 IMET 프로그램 운영, DSCA에서 방산 마케팅 지원, 영국(DIT-DSO), 프랑스(FNSEU), 이스라엘(SIBAT)에서 마케팅 활동 · 한국은 방진회 등을 통해 마케팅 지원 확대 중
수출지원 사업	○	×	○	·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성능개량 사업 등 지원 확대 · 한국도 수출용개조개발사업 등을 시행 중이나, 사업 범위 및 예산 확대, 수출용 시제품 구매 지원사업 신설 등 지속 개선 노력 필요
해외 파견조직/인력 확대	○	△	△	· 미국은 주재 대사관에 방산수출 담당자 다수 운영, 러시아, 중국은 주요 방산수출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별 2~5명 이상 수출 전담요원 배치, 이스라엘도 주요국 위주로 방산수출 전담요원 다수 파견 · 한국은 선진국 대비 저조. 국방무관이 1인 2역 수행 다수 수출 유망 국가 중심으로 방산협력관 확대 필요
잉여 도태물자 활용	○	△	△	· 미국은 WWRS 제도 운영, DRAM 잉여군수품 판매, FMS 판매 시 재고 판매, 영국은 UKTO-DRO에서 잉여물자 판매소(DSA) 운영, 이스라엘은 방산수출국(SIBAT)에서 잉여중고물자 수출 · 한국은 완제품 수출과 잉여도태물자 연계 수출 검토 중
G to G 제도	◎	△	△	· 미국은 대외군사판매제도(FMS)로 제품부터 운영 유지 부품, 수리 부품 등 후속군수까지 보장하며, 영국은 LSA 제도 운영, 이스라엘, 프랑스는 각각 SIBAT, ODAS 등의 기관이 담당 · 한국은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에서 전담, 선진국 대비 소극적/수동적
수출 절충교역 (산업협력)	○	△	△	· 방산수출 선진국들은 절충교역에 적극적이지 않음. 미국은 절충교역 수출 시 업체의 비용증가분을 보전, 이스라엘은 수입 시 절충교역을 전략적으로 이용 · 한국은 최근 수출기업 단독의 수출 절충교역 제공에 심각한 애로
패키지 딜	○	△	△	· 미국은 FMS 차원에서 교육, 기술 지원, 초도지원 소요까지 패키지 지원(TPA), 프랑스도 장비수출에 패키지로 기술, 재정 지원 · 한국은 선진국 대비 미흡, 향후 완제품 패키지, 중고무기 패키지, 불용물자 패키지 등의 스마트 방산협력 패키지 마련 필요,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GVC 진입지원사업 등 신설 필요
획득사업 시 수출 가능성 검토	○	△	X	· 영국은 UKTI DSE의 수출지원팀에서 자국 획득사업 수행 시 참여하여 충분한 검토 수행, 러시아는 무기 개발 시 별도의 수출용 시제품 개발, 미국은 초기 단계부터 최대한 수출 가능성 검토 · 한국은 초기 단계 수출 가능성 검토 부재 수출용 시제품 추가 제작 필요
수입 절충교역	◎	△	X	· 터키,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수입 절충교역 강화 추세 · 한국은 주요 무기 수입국들의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부품 수출 등 요구 확대 추세 · 한국은 최근 수입 절충교역 급감, 과거 5년(2012~2016) 대비 10%(8억 달러)로 매우 저조

자료: 산업연구원(2012), 「주요국 방산수출 지원제도 분석과 시사점」을 수정·보완하여 재작성.

주: 1) ◎: 선진국 수준, ○: 선진국 수준 근접, △: 선진국 대비 다소 미흡, X: 선진국 대비 매우 미흡.

2)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4개국 기준.

3) 수입 절충교역은 터키,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 주요국 기준.

수출사업 지원 등을 위한 해외 파견조직·인력 확대, 우방국 및 수출 유망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 방산협력 네트워크 강화, 저리의 방산수출 금융 지원제도, 수출 시 기술료 면제, 중소기업 지원 및 성능개량 사업 등의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대 초반부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본격적으로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여러 분야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총 13개 방산수출 지원제도 중 컨트롤 타워 구축, 방산협력 네트워크

확대, 수출 시 기술료 면제, 방산마케팅 지원, 수출용 개조개발사업 등의 수출지원사업 신설 등 5개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소극적·수동적 차원의 G to G 운영, 수출절충교역(산업협력) 추진 애로, 패키지 딜의 다양성 부족, 선진국 대비 체계적인 금융지원 미흡, 잉여도태물자와 수출완제품의 연계 곤란, 해외파견조직/인력 확대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 대비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수입절충교역 실적 급감에 따른 논란과 초기 단계 수출 가능성 검토, 무기개발 간 수출 시제품 미반영 등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5. 글로벌 방산수출 Big 4 진입을 위한 향후 과제

(1) 제3세대 방산수출 전략 마련

향후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수출 BIG 4’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방산수출 전략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국내 방산수출은 탄약, 부품 위주의 ‘1세대 방산수출’(1990년대~2006)을 넘어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2020년까지 특정 완제품 위주 수출과 본격적인 방산수출 정책을 마련했던 ‘2세대 방산수출(2006~2020)’을 지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1년 방산수출 70억 달러를 넘어 향후 100억~200억 달러 이상의 방산수출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수출전략과는 다른 선진국 수준의 ‘3세대 방산수출’ 전략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방산수출 Big 4’ 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과 함께 특정 수출 품목·방식 다양화 및 수출 범위 확대, 선진국 수준으로 기존 수출지원제도 업그레이드, 범부처 차원의 수출지원, 구매국 맞춤형 ‘스마트 패키지 딜’ 마련, 한·미 RDP-MOU 체결을 통한 미 방산시장 진출 기회 마련 및 중소기업 수출 확대, 절충교역 고도화, 수출 시 기술료 영구 감면 및 구매국들의 빠른 납기 요구 충족을 위한 신속획득사업과 무기수출 간 연계 강화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방위산업 컨트롤 타워 강화

〈표 5〉 제3세대 방산수출 전략 주요 내용

	1세대 방산수출 (1990년대~2006)	2세대 방산수출 (2006~2020)	3세대 방산수출 (2021~)
수출 품목	탄약, 부품 위주	특정 완제품 위주	완제품+공동개발+ 기술 수출+서비스 수출
수출 기업	대기업 위주	대기업 위주	대기업+중소벤처기업
수출 주체	중앙정부(국방부)	중앙정부(방사청)	중앙정부(범부처)+지자체
수출 방식	완제품 위주	완제품 위주	스마트 패키지 딜 (완제품 패키지+중고무기 패키지+불용물자 패키지 등)
수출 시제	미대여	일화성 대여	상시 대여+대여료 감면
G to G	-	대기업 위주	대기업+중소벤처기업
수출 범위	방위산업 위주	방위산업 위주	방위산업+공공보안산업+전력지원체계
컨트롤 타워	×	△	○ (안보실 범정부방위산업발전협의회)
기술료	비면제	한시적 면제(~2022.12)	영구 면제
수출 절충교역	×	기업 자체 해결	기업+범정부 지원
RDP-MOU	×	×	○ (세계 최대 미 방산시장 진출)
신속획득사업의 무기수출 연계	×	×	○ (구매국의 빠른 납기 요구 충족)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선진국 수준의 방위산업 컨트롤 타워 강화는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요자인 정부(Government)의 역할은 절대적이나, 국내 방위산업의 정부 경쟁력은 수년째 선진국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방산수출에 따른 구매국 제품에 대한 대응구매(countertrade), 수출 절충교역(산업협력), 수출 금융(financing) 등 범부처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대통령 안보

실 주관의 ‘범부처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정례화하여 방산수출 애로사항에 대한 범부처 측면에서의 해결책 마련, 주요 방산수출 관련 대통령 수시 보고 등을 통해 방위산업 컨트롤 타워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구매국 맞춤형 방산수출 확대

권역별 방산수출 거점 국가(Hub)에 우선 집중

〈표 6〉 주요국 방산 컨트롤 타워 현황

국가	주요 내용
프랑스	대통령 비서실장 주관 '방산수출현안회의' 매달 개최
미국	국무부 내 무기 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대통령의 대규모 FMS 무기 판매 관련 의사결정 지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주재 '방위산업위원회' 분기별 개최
일본	4대신 회합(방위성, 재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으로 방위산업 주요 현안의 최종 의사결정

〈표 7〉 방산수출 거점 국가 현황 및 향후 유망 국가 전망

권역명	국가명	주요 수출 실적	수출 유망 품목	방산수출 거점·유망 국가	
				현재	향후
북미	미국	창정비, 탄약, 절충교역 부품류 등	소형함정, 탄약, 자주포, 공동개발 등(RDP-MOU 추진 중)	◎	☆
	캐나다	N/A	탄약(소구경, 대구경) 등		★
아시아·CIS 태평양	인도네시아	훈련기, 잠수함 창정비 등	KT-1, 209잠수함, KFX 공동개발 등	◎	☆
	인도	K-9 자주포	군수지원함, K-9 자주포, 전차, 유도무기 등	◎	☆
	투르크 메니스탄	N/A	KT-1 등		★
	태국	호위함, T-50 훈련기 등	T-50, 호위함(2차) 등		★
	필리핀	경공격기, 호위함, 군용차량 등	견인포, 수송함, 중고장비 등	◎	☆
	미얀마	N/A	군수지원함, 중고장비 등		★
	말레이시아	초계함 등	함정, 기동장비, FA-50 경공격기 등		★
	일본	N/A	T-50 훈련기 등		★
오세아니아	호주	장갑차, K-9 자주포	천무, 갑차(레드백) 등	◎	☆
중동	터키	훈련기, 차기 전차기술 등	KT-1, K-9 자주포 등	◎	☆
	쿠웨이트	N/A	T-50 등		★
	아랍에미리트	천궁-II, 대전차 무기류 등	T-50, 유도무기, 성능 개량 등	◎	★
	사우디아라비아	전차 기술수출 등	천궁-II, 호위함, 비호복합, 유도무기 등	◎	☆
	이라크	훈련기, 비행장, 탄약, 국방통신망 등	KUH 등	◎	☆
	오만	전차, 장갑차 등	K-2 전차 등		★
유럽	영국	군수지원함	자주포, 함정 등		★
	크로아티아	N/A	FA-50 등		★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K-9 자주포, 전투차량 등		★
	폴란드	K-9 자주포, K-2전차, FA-50 경공격기	장갑차, 유도무기 등	◎	☆
	핀란드	K-9 자주포	K-9 자주포 등	◎	☆
	에스토니아	K-9 자주포	K-9 자주포 등		★
	스페인	N/A	T-50 훈련기 등		★
	불가리아	N/A	FA-50, 함정 등		★
	체코	N/A	K-9 자주포 등		★
	루마니아	N/A	K-9 자주포 등		★
아프리카	르완다	N/A	KT-1 등		★
	보츠와나	N/A	T-50, K-2 전차 등		★
	이집트	K-9 자주포	탄약플랜트, K-2 전차, FA-50, 호위함 등	◎	☆
	리비아	N/A	경공격기, 호위함, 장갑차 등		★
	세네갈	T-50 훈련기	FA-50 등	◎	☆
	나이지리아	N/A	T-50 훈련기, 전술차량 등		★

(계속)

권역명	국가명	주요 수출 실적	수출 유망 품목	방산수출 거점·유망 국가	
				현재	향후
중남미	파라과이	N/A	KT-1 등		★
	에콰도르	N/A	KT-1 등		★
	아르헨티나	N/A	FA-50 등		★
	콜롬비아	해상용 무기 등	탄약 플랜트, 수상함, FA-50 등	◎	☆
	페루	KT-1 훈련기 등	T-50, 수상함, 209잠수함 등	◎	☆
계				15+	50+

자료: 방산업체 인터뷰 종합, 2022. 1; 산업연구원(2014, 2018, 2020),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2018, 2020을 기초로 산업연구원 재작성.

주: ◎ 현재 거점 국가, ★ 신규 유망 국가, ☆ 향후 거점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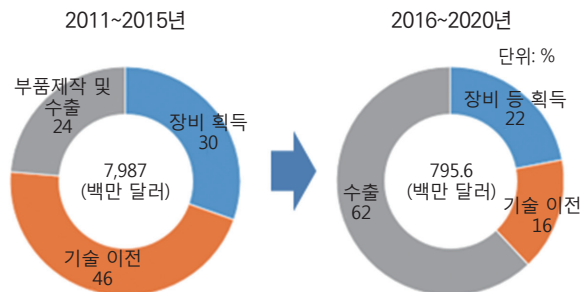
하고 이를 기점으로 주변 유망 국가(Spoke)로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구매국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술 이전, 산업협력, 금융지원 요구 등을 포함하는 구매국 맞춤형 수출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방부, 방사청,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를 비롯해 재외 공관, 무관부, KOTRA, 그리고 업체까지 포괄하는 방산수출 협력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부단한 노력으로 북미(미국), 아시아/태평양(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오세아니아(호주), 중동(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유럽(폴란드, 핀란드), 아프리카(이집트, 세네갈), 중남

미(콜롬비아, 페루) 등의 권역별 방산수출 거점(Hub)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방산수출 거점·유망 국가를 50개국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거점·유망 국가들을 중심으로 VIP 방문 및 방산군수협력을 확대하고, 범정부 차원의 수출 절충교역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절충교역 고도화

최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수입·수출 절충교역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수입 절충교

〈그림 6〉 절충교역 확보가치 비교
(과거 5년 vs 최근 5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6), 2015 회계연도 결산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2021), 방위사업통계연보.

〈표 8〉 수출 절충교역 이행 현황

기업명	수출 절충교역 이행 현황		
	이행 기간	잔여 기간	이행 현황
기업 A	15년	1년 미만	79%
기업 B	12년	3년	9.5%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역 제도는 과거 국내 방산수출에 효자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성과가 급락하고 있다. 절충교역 확보가치(offset value)는 최근 5년(2016~2020)간 8억 달러로 과거 5년(2011~2015)의 80억 달러 대비 무려 10% 수준으로 급락했다. 최근 5년(2016~2020)간 무기수입액 13조 6,000억 원 대비 절충교역 확보가치도 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최근 절충교역 의무조항 폐지 논란, 사전가치축적제도 미정착, 절충교역 비중 축소(FMS 선택 적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절충교역 비중/금액 기준 강화, 사전가치축적제도로 전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입 절충교역의 위상을 정상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출 절충교역과 관련해서도 무기 구매국들의 수출 절충교역 요구 강화, 자국부품 의무화 등 기업 자체 수출 절충교역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2022) 조사에 따르면, 국내도 수출기업의 수출 절충교역 이행률은 전체의 10%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추가적으

로 수출 절충교역 지원제도의 구체화,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한 체계적인 수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최대한 고려한 무기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무기 개발 시 기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거나 수출형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무기체계 개조개발 예산 및 수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원예산도 현재 연간 400억 원 수준에서 향후 수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혜 대상 또한 중소기업과 함께 대·중견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산 중소기업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진입 지원사업(가칭)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 방산시장의 GVC(Global Value Chain)을 분석하고 방산기반조사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참여 가능 및 유망 분야(품목)를 도출하는 등 GVC 진입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9〉 방산중소기업 GVC 진입 지원사업(안) 주요 내용

방산중소기업 GVC진입 지원사업 주요 내용(예시)	
해외 방산시장 정보 제공/컨설팅	· 미국 등 세계 주요국 조달계획 정보 제공 · 해외 주요 방산 대기업의 원·부자재 공급 동향 등 밸류체인 정보 제공 · IR, 투자유치 등을 위한 맞춤형교육(피칭 및 멘토링), 기술교류회, 해외시장 설명회 · 한·미 공동 글로벌 Pitch Day 신설 등
정부 지원	· G to G, 절충교역, 국제공동개발 등 정보 제공 및 지원, 수출 완제품 내 주요 부품 국산화 지원 등
기술적 지원	· 국내외 인증 평가 지원(미 CMMC 인증 등) * 군 납품 실적 등 실적 증명자료 지원, 기술 자료(도면, 규격 등) 제공, E./L 등 수출 제한 규정 정보 제공 등
해외 방산 전시회 참가	· 방산 대기업 등과 동반한 해외 방산전시회, 무역 사절단 등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표 10〉 미국과 주요국 간 방산무역 협정체결 현황

국가명(31)	RDP-MOU(28)	NTIB(3)	SOSA(9)	RGQAA(21)
캐나다	○	○	○	○
호주	○	○	○	○
영국	○	○	○	○
핀란드	○		○	○
이탈리아	○		○	○
네덜란드	○		○	○
노르웨이	○		○	○
스페인	○		○	○
스웨덴	○		○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
체코	○			○
덴마크	○			○
이집트	○			
프랑스	○			○
독일	○			○
그리스	○			○
이스라엘	○			○
일본	○			
룩셈부르크	○			
폴란드	○			○
포르투갈	○			
슬로베니아	○			
스위스	○			
터키	○			○
루마니아				○
슬로바키아				○
에스토니아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대한민국				○

자료: 미 DoD(2022)를 기초로 산업연구원 작성.

주: 1) NTIB: 국가안보공급망협정, National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

2) SOSA: 방산물자공급안정협정, 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

3) RGQAA: 국방품질보증협정, Reciprocal Government Quality Assurance Agreement.


(6) 한·미 RDP MOU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마지막으로 향후 미·중 전략경쟁 심화, 우방

국 간 공급망 재편 등을 고려하여 새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duction-MOU, 이하 RDP-MOU)¹⁾ 체결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 시장에 중소기업들

1) 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는 소위 '방산 FTA'라고도 불리는데, 미국방부가 동맹국 및 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로 체결 상호국 간 군 장비의 표준화, 합리화, 상호운용성 제고를 통한 군사 대비 태세 강화 및 공동 R&D, 방산물자 및 부품 획득, 서비스, 공급망 등 방산협력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미국은 2022년 9월 현재 영국, 프랑스, 일본,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 28개국과 RDP-MOU를 체결했으며, 체결국에게는 미국산우선구매법(BAA, Buy American Act)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포함한 국내 방산기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미국과의 주기적인 소통의 장을 확대하여 양국 간 공동 개발, 생산, 마케팅 강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원준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기계·방위산업실 연구위원
wjjang47@kiet.re.kr / 044-287-3284

「중소벤처기업 친화형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전략」(공저, 2019)
「주요국 방위산업 관련 클러스터 육성제도 분석과 시사점」(공저, 2018)



송재필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기계·방위산업실 연구원
jpsong2@kiet.re.kr / 044-287-3221

「중소벤처기업 친화형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전략」(공저, 2019)
「2018 방위산업통계 및 경쟁력 백서」(공저, 2019)



김미정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기계·방위산업실 전문연구원
mjkim@kiet.re.kr / 044-287-3257

「글로벌 방산수출 구조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공저, 2021)
「2020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공저, 2020)